

2011 신년특집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는게 독자에 대한 예의”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말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49)의 책은 한국에서 출간되지만 하면 불티나게 팔린다. 100만부 이상 팔린 베르베르의 대표작 ‘개미’까지 갈 것도 없이 가장 최근작인 ‘카산드라의 거울’(전 2권·열린책들)을 보면, 출간된 지 한 달도 채 안된 지난해 12월 셋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6위에 올랐다. 쿼터 높고,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프랑스인이지만 이쯤 되면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부를 만도 하지 않을까.

광주일보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는 프랑스령인 인도양의 섬 라 레위니옹(La Reunion)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초 프랑스에서 출간된 장편소설 ‘키클롭스의 웃음(Le Rire du Cyclope)’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베르베르는 라 레위니옹에서 몇 차례의 강연회와 사인회 등을 가졌다. 장거리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12월21일에는 파리 시내 한 동네 서점에서 사인회를 했다. 스케줄 표를 보니 라 레위니옹에 가기 전에는 자신의 고향인 남부의 툴루즈(Toulouse)에서 강연회와 사인회를 열었다. 매년 장편소설을 발표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베르베르를 두고 ‘자판기의 메트로놈’이라고 표현했는데, 글은 대체 언제 쓰는지 궁금할 정도다. 프랑스인들은 가족들과 지내지 마련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약조권이 겹쳤지만 그는 ‘제2의 조국’에서 찾아온 취재진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실 벽에 프로젝트 빔을 이용해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1천500만부 이상의 책을 판 대형 작가의 아파트 치고는 심하게 광범하다. 거실 벽에 간간히 걸린 기하학적 문양의 베르베르 작(作) 회화와 신화, 수학, 심리학, 생물학, 의학, 논리학, 화학 등 도무지 주인의 취향을 가능하기 어려운 책들이 꽂힌 책장이 없었다면 베르베르의 아파트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였다.

학교 보내지않는 프랑스인 아직도 많아 교육열·지적 욕구 높은 한국인들 존경

취재진을 안내한 곳은 세 평 남짓한 작업실.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책상에는 알디얌 최신희 맥킨토시 노트북 컴퓨터 두 대가 놓여 있다. 그곳에서는 집필이 아니라 차분히 앉아 독서를 하기도 힘들어 보인는데, 베르베르는 “매일 아침 8시부터 12시30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글쓰기를 한다”며 “글은 주로 집 앞 카페에서 쓴다”고 말했다. 그가 사는 동네는 한국인들도 꽤 많은 곳이라 카페까지 찾아오는 열혈 한국인 독자들이 있다고 한다. 강연회에, 사인회에 여행 다니느라 “매일 오전 4시30분 집필 원칙”은 지키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디를 가든 원칙은 꼭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베르베르는 가장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프랑스 현대 작가 중 하나다. 30여개국 27개 언어.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의 인기가 폭발적인 것일까. 전체 판매량의 3분의1이 넘는 600만부가 한국에서 팔렸다. 그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미래에 대한 관심을 그 이유로 꼽았다.

“프랑스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지적 욕구가 높은 것 같아요. 경쟁 위주의 교육이 비판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학교는 가장 좋아요. 군대 시절 동기 40명 중 나를 포함한 단 3명만이 바칼로레아(대학입학 자격시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놀란 적이 있어요. 세상이 내가 알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 그 때 알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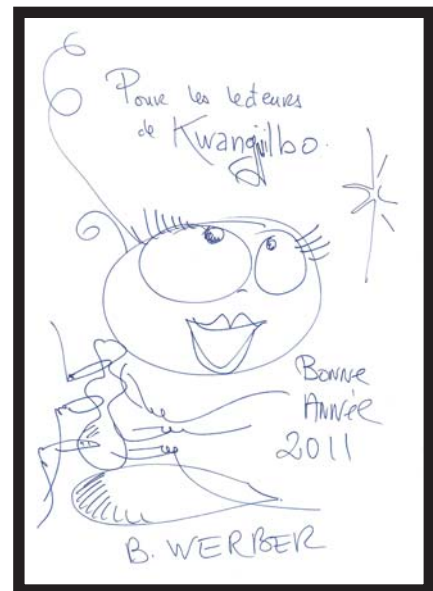
20년도 넘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도시 외곽의 빈민지역이나 시골에서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프랑스인들이 꽤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기 위해 미래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베르베르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라는 의미에서”라고 부연 설명했다. 작가는 한국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그는 “한국 전쟁이나 일제의 식민 지배 정도”라고 말했다.

베르베르의 한국 최근작 ‘카산드라의 거울’은 한국인 등장인물이 나와서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전부터 한국인이 주인공급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쓰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작품 속 한국인 ‘김예빈’(출판사 사장의 아들 이름을 차용했다)은 탈북자 출신의 컴퓨터 천재로, 미래를 예언하는 주인공 카산드라와 러브 라인을 형성한다. 작품 속 김예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는 “직접 탈북자를 만나거나 하진 않았다. 한국인이지만 남한이 아닌 독재국가에서 태어나 탈출에 성공한 상상 속의 인물이다”고 했다.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소수를 그려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의 최신작은 ‘키클롭스의 웃음’이다. 한 유명 작가가 너무 웃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전 작품 ‘아버지들의 아버지’(2001년)와 ‘뇌’(2006년)에서 호흡을 맞췄던 혼성 콤비 튀르레스와 이지드르가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재미있다. 이 장편소설은 단편소설 모음집 ‘파라다이스’(2010년 5월)에 실린 단편 ‘담담이 태어나는 곳’이 확장된 것이다. 베르베르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단편소설 중 네티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묻는 설문문을 실시했는데 ‘담담이 태어나는 곳’이 2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1위

는? “네티즌 투표 1위를 차지한 ‘내일 여자들은’은 다음 장편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살짝 귀띔한다. 독자들의 한 표가 다음 소설의 주제를 결정할 것이다. 그를 좋아하는 열성 팬이라면, 사이트에 접속해 장편으로 읽고 싶은 주제에 클릭을 해볼 만도 하다. 한국인 등장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한국 독자와의 약속이 탑서비스에 그치지 않았듯 그는 독자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 독자는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있어 내가 살 수 있어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한국 독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요”라고 썼다.



3월이면 첫 소설 ‘개미’ 발표된지 만 20년 지금의 작가생활은 내 생애 최고의 행운

한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나를 먼저 알아줬잖아요. 한국은 나에게 ‘제2의 조국’과도 같다는 말은 전혀 반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프랑스에서도 고정 독자층이 탄탄한 베르베르이지만 약점도 있다. 그의 소설이 주로 추리나 공상과학 소설 즉 장르 소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학계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소설이 프랑스 내에서 수백만 부 팔렸는데도 공쿠르나 로노도 등 권위 있는 문학상과 인연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작가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는 개의치 않는다. 문학상에 선정되는 작품들은 대개 “지루하고 이야기(histoire)가 없는 것들 뿐”이라고 잘라 말하는 베르베르는 그래서 2004년부터는 문학상 후보작들이 발표되는 9월 이후인 10월에 출간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문학상에서 발표하는 작품과는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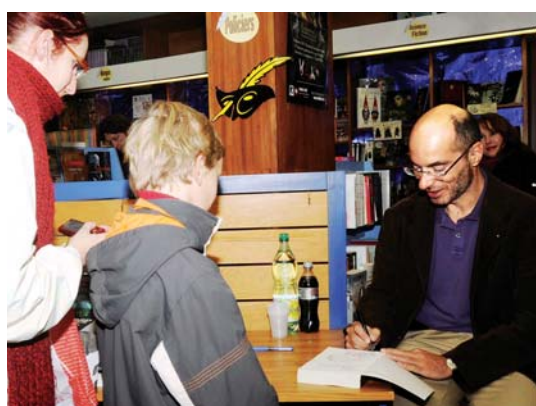
올해 3월이면 베르베르의 첫 소설 ‘개미’가 발표된 지 만 20년이다. 그는 “운이 좋았다. 모든 게 만족스러운 지금의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새해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밝히자면 2011년에도 꾸준히 글을 써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권짜리 장편소설을 계획대로 출간하는 것”이라고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지내진 겸손이거나 넘치는 자신감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베르베르는 가족들과의 연말 모임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미안하며 시계를 자주 훑었다. 그러면서 도 최근 연평도 사건 등 위신을 통해 접하는 한국 소식에 대한 우려와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북한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해결됐으면 해요. 한국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왔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놓은 씨앗의 열매를 수확한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누릴 권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前 광주일보 파리특파원 sphiljeong@gmail.com



▲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1961년 툴루즈 출생.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과 범죄학을 공부하고, 파리 저널리즘 학교를 졸업했다.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 과학부 기자로 일했다. 1991년 3월 ‘개미’를 출간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타나토노트’, ‘신’, ‘뇌’, ‘파괴음’,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등을 썼다.



파리 시내의 작은 서점에서 저자 사인회를 열고 있는 베르베르.

파리=글·사진 정성팔 객원기자

취재진은 사인회가 열렸던 21일 서점에서, 이를 후인 23일 파리 페아뜨르가 31번지 그의 집에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베르나르를 만났다. 사인회는 조촐했다. 십수명의 독자들이 베르베르의 책을 가슴에 품고 작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예정시간인 오후 7시를 5분 넘긴 시각에 2인용 승용차 스마트(Smart)를 타고 나타났다. 최소한 사나흘은 내버려둔 듯 주위에 수염이 자란 모습은 생소했지만, 먼 티셔츠에 코르텐 자켓을 걸친 심플함은 예상대로다. 기다리는 독자들에게 두 손을 모으며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짹짹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허리춤에 빨간 케이스로 장식된 아이폰이 눈에 들어온다.

“프랑스에서 출시되던 날 당장 구입했어요. 시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체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사용하기에도 까다롭지 않고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는데, 주로 네비게이션, 요리 레시피, 독서, 게임, 운동 보조 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사용해요.”

동네 서점에서 사인회하고 아이폰 애용 유명세와 달리 평범한 일상 즐기는 작가

베르베르는 심장이 좋지 않아 매일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 그의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볼로뉴(Boulogne) 숲에서 조깅을 하거나 집에 있는 사이클 페달을 밟으면서 아이폰을 착용하고 칼로리를 계산한다고 한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초등학생 손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온 할머니, 중국인 유학생 등 30여명에게 사인을 해주는 사이 1시간 가량이 훌쩍 지났다. 대형서점에 설치된 무대야 아닌, 열댓평 공간의 조그만 동네 서점에서 밀리언셀러 작가를 만나는 일은 색다른 느낌을 줬다.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답해주고 일일이 개미, 물고기 등의 만화까지 그려준 베르베르는 독자의 눈높이를 아는 작가 같았다.

눈이 내리던 23일 오후 7시 베르베르와 만나기 위해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아파트는 에펠탑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평범한 현대식 건물 5층이었다. 취재진을 맞은 건 ‘개미’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 그의 아들 조나탕이었다. 고등학생인 조나탕은 또래 친척들과 거